미국 정책 리스크와 성장 모멘텀의 공존

Hana China Weekly | 2026.2.27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플랫폼: 정부의 저가 경쟁 근절 요구에 주가 약세

- 연휴 기간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바이두, 알리바바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을 소집해 저가 경쟁 근절을 요구. 규제 당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질서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플랫폼 경제의 혁신과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출혈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2/15 미국 정부가 알리바바, 바이두를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1260H)에 잠시 추가했다가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중국 빅테크의 글로벌 사업 및 투자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됨. 이 같은 미·중 정책 변동성은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확장 및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고려 요인으로 남아 있음. 해당 이슈들이 부각 되며 연휴 이후 2/20 홍콩 증시에서 바이두(9888.HK), 알리바바(9988.HK)는 각각 6.3%, 4.9% 하락 마감.

바이트댄스(비상장): 기업 가치 5,500억달러 이상으로 평가

- 2/26 미국 투자회사 General Atlantic가 바이트댄스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거래를 추진하면서, 이 거래가 기업 가치를 약 5,500억달러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이 평가는 지난해 직원 지분 매입 시점의 약 3,300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수준으로 작년 말 비상장 주식 거래에서 약 4,800억달러 평가를 기록한 것보다도 높은 수치. General Atlantic은 2017년 약 200억달러 수준일 때 바이트댄스에 투자했으며, 최근 몇 주간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을 시작했고 3월 안에 거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힘. 거래 규모나 매각 후 지분 비중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비상장사인 바이트댄스의 시장 가치는 외부에서 명확히 알기 어렵지만, 이번 매각은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수요를 시험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됨.

화웨이(비상장): 2025년 매출 8,800억위안, 미국 제재 속 견조한 성장

- 2/24 화웨이는 '2026년 광둥 고품질 발전 콘퍼런스'에서 2025년 매출이 8,800억위안(YoY +2.3%, 2024년 8,621억위안) 이상을 달성했다고 밝힘. 이는 미국의 반도체·통신 장비 제재가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2020년(최고 매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연간 매출 수준. 화웨이는 지난 한 해 동안 특히 스마트폰 부문에서 회복세를 보임. 2025년 중국 본토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6.4%를 기록하며 16.2%의 애플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를 탈환한 것으로 확인. 이는 자체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복귀, 프리미엄 모델 판매 확대, 브랜드 충성도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플랫폼/테크

플랫폼: 정부의 저가 경쟁 근절 요구에 주가 약세

- 연휴 기간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바이두, 알리바바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을 소집해 저가 경쟁 근절을 요구. 규제 당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질서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플랫폼 경제의 혁신과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출혈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2/15 미국 정부가 알리바바, 바이두를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1260H)에 잠시 추가했다가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중국 빅테크의 글로벌 사업 및 투자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됨. 이 같은 미·중 정책 변동성은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확장 및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고려 요인으로 남아 있음. 연휴 이후 2/20 홍콩 증시에서 바이두(9888.HK), 알리바바(9988.HK)는 각각 6.3%, 4.9% 하락 마감.

바이트댄스(비상장): 기업 가치 5,500억달러 이상으로 평가

- 2/26 미국 투자회사 General Atlantic가 바이트댄스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거래를 추진하면서, 이 거래가 기업 가치를 약 5,500억달러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이 평가는 지난해 직원 지분 매입 시점의 약 3,300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수준으로 작년 말 비상장 주식 거래에서 약 4,800억달러 평가를 기록한 것보다도 높은 수치. General Atlantic은 2017년 약 200억달러 수준일 때 바이트댄스에 투자했으며, 최근 몇 주간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을 시작했고 3월 안에 거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힘. 거래 규모나 매각 후 지분 비중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비상장사인 바이트댄스의 시장 가치는 외부에서 명확히 알기 어렵지만, 이번 매각은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수요를 시험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됨.

바이트댄스(비상장): 시댄스 출시 보름만에 돌풍

- 바이트댄스가 선보인 '시댄스 2.0'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 시댄스가 이달 초 출시된 지 불과 보름 만에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영화 수준의 영상을 제작해내는 성능을 입증하면서 1년 전 저비용·고성능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딥시크'의 영상판이 현실화했다는 관측이 제기. '시댄스 2.0'이 미국에 상륙하면서 영화를 비롯한 영상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중국 현지 매체는 보도. 지난해 초기에는 시댄스가 '커링', '소라' 등과 비교해 성능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더우인을 비롯한 바이트댄스 산하 플랫폼에 축적된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면서 성능을 빠르게 끌어올렸다는 분석.

알리바바(BABA.US): 우수한 성능, 저비용의 Qwen 3.5-Plus 공개

- 알리바바는 2/16 차세대 AI 모델(Qwen 3.5-Plus)을 공개, 성능은 Gemini 3 Pro에 필적할 수준이지만 토큰 가격은 1/18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힘. 한편 Qwen 프로모션 '한 마디로 주문하기' 유저 중 2000년대생 비중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젊은 층 유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으로 판단.

미니맥스(0100.HK): 모건스탠리, 모델 성능 최상위 유지 시 글로벌 기업과 비교 가능할 것

- 2/22 모건스탠리는 미니맥스를 '글로벌 최상위 기초모델을 보유한 희소 자산'으로 평가하며, 높은 밸류에이션의 핵심 논리를 "기술이 천장을 결정하고, 글로벌화가 밸류에이션을 결정한다"는 문장으로 정리. 보고서에 따르면 미니맥스의 모델 성능이 글로벌 최상위권을 유지한다면 성장 잠재력은 글로벌 TAM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매출 구조가 해외 중심이라면 밸류에이션 비교 기준 역시 전통적인 중국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AI 비교 기업에 맞춰질 것이라고 분석. 모건스탠리는 미니맥스의 핵심 경쟁력을 지속적인 모델 반복(iteration) 능력, 멀티모달 전략, 비용 효율성 세 가지로 정의하였음.

Zhipu AI(2513.HK): GLM-5 공개 후 결함 발견 이슈에 주가 급락

- 2/22 Zhipu는 GLM-5 기술 보고 발표 및 기술 디테일을 모두 전면 공개. GLM-5는 추론 코딩 모델을 베이스 코딩에서 에이전틱 코딩(Agentic Coding)으로 전환한 차세대 모델. 2/23 Zhipu는 전일 GLM-5의 일부 기능 결함 및 서비스 대응 부족 이슈에 대해 사과문을 공개하며 주가 23% 급락. 특히 컴퓨팅 자원 제약이 모델이 수용할 수 있는 사용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됨.

휴머노이드: 중국 기술 발전 재차 입증

- 골드만삭스는 2026년 CCTV 춘완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로봇 공연이 중국 로봇 하드웨어 공학의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유니트리, 노에트릭스, 매직랩 등 민영 기업들이 선보인 로봇들은 다기체 협업과 동작 동기화, 유연한 움직임과 동적 균형 유지 능력, 인간과 유사한 민첩성과 장애 복구 능력 등을 보여주며 전신 제어 기술의 발전을 입증. 특히 고난도 안무 속에서도 안정성과 정밀성을 유지한 점은 구동기 기술, 센서 통합, 고급 제어 알고리즘의 빠른 개선을 보여준다고 분석.
- 다만 춘완 공연은 사전에 정밀하게 프로그래밍되고 반복 연습된 결과물로, 통제된 환경에서의 최대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로봇의 실제 인공지능 역량을 충분히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이 2026년 약 2만 대에서 2027년 7만6천 대로 급증하며 수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라였으며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핵심 부품·모터·감속기·센서 등 공급망 종목에 투자 열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

링커봇(비상장): 정교한 동작 구현 가능한 휴머노이드 공개

- 2/23 SCMP가 베이징 소재 로봇 혁신 기업 링커봇(LinkerBot)이 인간의 손동작을 정교하게 구현한 휴머노이드용 로봇 손을 공개했다고 전함. 이번 기술은 단순 하드웨어 성능 경쟁을 넘어, 로봇 산업의 패러다임이 '기계 구조' 중심에서 '숙련 기술 데이터(스킬 데이터)' 축적 및 학습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링커봇은 단순 동작을 넘어 피아노 연주와 정밀 의료 보조 작업이 가능한 수준의 민첩성과 정밀도를 확보했다고 설명함. 이는 다관절 구동 제어, 촉각 센서 통합, 고정밀 힘 제어 알고리즘 등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인간 수준의 미세 조작 능력 구현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분석.

소비

면세: 매출, 이용객 모두 전년대비 눈에 띄게 증가

- 2월 15~19일(춘절 연휴 초반 5일) 동안 하이난 이도 면세 쇼핑 매출은 13.8억위안(YoY+19%), 이용객 수는 17.7만명(YoY+25%)으로 집계. 이는 춘절 연휴를 맞아 국내 관광 수요가 회복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이번 수치는 지난해 부진했던 소비 심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춘절 기간 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음.

스마트폰: 중국 기업 글로벌 주도권 경쟁력 확보에 집중

-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Mobile World Congress 2026(MWC 2026) 개막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공격적인 기술 전략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 특히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됨. Xiaomi는 MWC 개최지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전시회 개막 이틀 전인 2월 28일 '샤오미 17 시리즈' 글로벌 론칭 행사를 열 예정. 이는 공식 개막에 앞서 글로벌 미디어와 시장의 관심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됨. 이번 MWC에서는 단순한 고사양 경쟁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능 강화와 로봇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

쉬인(비상장): 처음으로 중국과의 관계 언급, 광둥성에 100억위안 투자

- 쉬인 CEO는 그동안 중국과 거리를 두기 위해 본사를 싱가폴로 이전했지만, 2/24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광둥성과의 '뿌리'를 강조하였음. 광둥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회사의 핵심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100억위안 이상을 투자해 '스마트 공급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패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

귀주모태(600519.SH): iMoutai 플랫폼 신규 유저 600만명 이상으로 확대

- 귀주모태는 산하 iMoutai 플랫폼의 신규 유저가 600만 명 이상으로 늘었고 오프라인 고객이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80·85·95년생 소비자가 주요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따라 플랫폼 누적 이용자 기반이 한층 확대됐으며, 온라인 예약, 추첨 판매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접점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하이디라오(6862.HK): 춘절 기간 매장 방문객 수 급증

- 중국 설 연휴(춘절) 기간 동안 외식 소비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하이디라오 매장 방문객 수가 1,4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됨.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수치로, 연휴 기간 내수 소비 회복세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 2/25 하이디라오 주가는 6.2% 상승 마감

전기차

BYD(1211.HK): BYD, MW급 플래시 충전 인프라 본격 구축 착수

- 2/24 BYD는 중국 전역에서 메가와트(MW)급 플래시 충전 시설의 대규모 설치에 착수. 충전 인프라 전략을 '계획' 단계에서 '본격 실행' 단계로 전환한 것. 신규 충전소는 청록색 외관과 상단이 'T'자 형태인 구조를 채택하였으며 기존 충전소에서 자주 발생하던 케이블 바닥 끌림 문제를 개선하였음.

샤오펑(9868.HK): 2026년 Physical AI·글로벌 전략 전면 가동

- 허샤오펑 CEO는 26년 Physical AI 및 글로벌화 전략의 전면 추진을 예고. 로봇·플라잉카·Robotaxi 3대 사업의 동시 양산과 해외 판매량의 100% 성장을 목표로 제시. 2026년에는 3대 사업의 동시 양산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해외 판매량을 전년 대비 100% 성장(2배 확대)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힘.

니오(9866.HK):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 역대 최고치 경신

- 2/21 니오는 전국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 일간 충전 이용량이 17.6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 이에 2/23 니오 주가는 5.6% 상승 마감.
- 니오는 2분기 중 두 개의 신차를 공식 출시하며 SUV 시장 공략을 강화할 예정. CEO는 최근 미팅에서 2025년 상반기 핵심 제품 로드맵을 공개했으며, 여기에는 니오 메인 브랜드와 서브 브랜드 Onvo의 신모델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니오는 4월 10일 전후로 플래그십 SUV ES9의 제품, 기술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5월 말 공식 판매를 시작하고 가격을 공개한 뒤 6월 1일부터 인도를 개시할 예정.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상업화 단계로 돌입

- 2/20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리자동차와 체리자동차는 최근 전고체 배터리 산업 계획을 공개하며 배터리 적용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확인. 양사는 올해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출시해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로 넘어갈 예정.
- 창안자동차는 2/24 전고체 배터리 '진중자오' 프로젝트를 가속화할 예정이며 올해 3분기 이전 로봇과 차량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해 기술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창안은 2025년 말까지 프로토타입 차량에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하고, 2026년 차량 탑재 검증을 거쳐 2027년 단계적 양산에 돌입한다는 기존 로드맵을 재확인하였음. 해당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400Wh/kg, 1회 충전 주행거리 1,500km 이상을 목표로 하며, AI 기반 원격 진단 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기존 대비 70% 개선했다고 설명.

반도체

샤오미(1810.HK): 하드웨어 넘어 '자체 기술 스택' 강화 선언

- 레이쥔 CEO가 향후 5년간 반도체/AI/OS 등 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글로벌 선도 테크 기업으로의 성장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이는 스마트폰·가전 중심의 하드웨어 기업을 넘어, 자체 기술 스택을 보유한 글로벌 테크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 특히 칩 설계 역량 강화와 AI 기반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강조하며, 전기차·스마트 디바이스·IoT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

화웨이(비상장): 2025년 매출 8,800억위안, 미국 제재 속 견조한 성장

- 2/24 화웨이는'2026년 광둥 고품질 발전 콘퍼런스'에서 2025년 매출이 8,800억위안(YoY +2.3%, 2024년 8,621억위안) 이상을 달성했다고 밝힘. 이는 미국의 반도체·통신 장비 제재가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2020년(최고 매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연간 매출 수준. 화웨이는 지난 한 해 동안 특히 스마트폰 부문에서 회복세를 보임. 2025년 중국 본토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6.4%를 기록하며 16.2%의 애플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를 탈환한 것으로 확인. 이는 자체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복귀, 프리미엄 모델 판매 확대, 브랜드 충성도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5E	2026E	2025E	2026E			
텐센트(0700.HK)	0.7	16.5	20.7	13.8	10.6	15.2	13.3	39.4	0.0	2026-03-18
알리바바(BABA.US)	(4.1)	25.3	9.6	3.9	10.7	(14.1)	16.2	(40.0)	(0.3)	2026-03-06
징동(JD.US)	(1.6)	10.5	9.6	12.8	5.1	(45.8)	12.0	(42.3)	0.0	2026-03-05
트립닷컴(9961.HK)	(0.7)	12.6	10.0	13.0	12.7	(44.9)	13.6	(36.4)	(1.3)	2026-05-19
텐센트뮤직(TME.US)	(3.0)	15.8	14.1	15.1	12.7	66.2	(10.4)	46.6	0.6	2026-03-17
콰이쇼우(1024.HK)	(5.5)	11.6	24.8	12.0	9.5	18.1	15.6	45.9	0.0	2026-03-25
하이얼스마트홈(600690.CH)	0.1	11.4	17.3	8.3	5.4	12.8	9.9	12.5	0.0	2026-03-27
샤오미(1810.HK)	(1.1)	18.9	18.5	28.1	18.3	81.8	(1.1)	77.6	0.0	2026-03-24
레노버(0992.HK)	4.6	9.4	26.1	15.5	8.3	21.2	6.1	11.6	0.0	2026-05-22
팝마트(9992.HK)	(5.7)	21.2	71.8	190.7	34.4	301.3	35.9	298.7	0.3	2026-03-26
미니소(MNSO.US)	(7.2)	14.9	21.8	25.0	19.5	(18.1)	46.0	299.2	6.0	2026-03-20
BYD(1211.HK)	(0.6)	21.2	17.1	7.5	14.8	(12.4)	28.4	(15.5)	0.1	2026-03-24
샤오펑(9868.HK)	1.5	-	(4.9)	90.6	37.8	적지	흑자	적지	0.8	2026-03-18
CATL(300750.CH)	(5.7)	22.6	23.4	16.6	26.2	35.6	26.0	35.4	0.0	2026-03-09
양광전력(300274.CH)	(2.6)	19.9	32.5	24.4	21.0	41.6	20.2	40.2	0.0	2026-04-24
북방화창(002371.CH)	(3.2)	48.2	19.2	31.6	27.3	24.0	34.8	24.7	0.0	2026-04-27
SMIC(0981.HK)	1.3	69.0	4.5	20.3	16.9	46.5	34.1	51.1	0.0	2026-05-08
해광정보(688041.CH)	4.1	201.0	13.6	58.8	51.5	65.0	55.8	61.7	0.0	2026-04-07
통푸마이크로(002156.CH)	7.7	62.0	8.3	15.2	15.6	80.8	28.0	99.3	10.4	2026-04-16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1.2	31.5	20.5	50.7	67.7	51.1	78.6	46.7	0.0	2026-03-10
중지쉬창(300308.CH)	1.8	57.0	41.0	58.0	104.2	108.9	118.3	102.7	0.4	2026-03-30
포니AI(PONY.US)	4.3	-	(16.7)	16.2	35.5	적지	적지	적지	(0.0)	2026-03-25
위라이드(WRD.US)	0.0	-	(19.9)	71.4	82.7	적지	적지	적자	-	2026-03-13
허사이테크(HSAI.US)	(1.8)	66.6	7.0	51.6	44.0	흑자	57.1	흑자	0.0	2026-03-10
호라이즌로보틱스(9660.HK)	(7.9)	-	(47.0)	50.3	67.4	적자	적지	적자	0.0	2026-03-23
킹소프트(688111.CH)	(2.7)	73.4	15.1	17.2	18.6	15.2	21.2	17.3	0.0	2026-03-25
중신증권(6030.HK)	(3.2)	12.3	10.2	(15.2)	8.6	36.8	14.3	43.1	0.0	2026-03-26
평균	(1.1)	37.1	13.6	33.5	29.1	40.3	29.3	55.4	0.7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플랫폼 기업 Non-IFRS 기준, 홍콩 상장 종목은 반기 및 연간 실적만 발표,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예상치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2월 2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는 2026년 2월 2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